

SK케미칼,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

정밀화학 · 석유화학소재 사업 통합 ... 사업조직 3개에서 2개로 슬림화

SK케미칼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.

SK케미칼은 최근 정밀화학, 석유화학소재, 라이프사이언스(생명과학) 등 기존 3개 사업조직을 케미칼 비즈니스와 라이프사이언스 비즈니스 등 2개 조직으로 줄였다.

정밀화학과 석유화학소재 부문을 통합해 케미칼 비즈니스로 묶는 등 2009년 상반기 조직개편의 특징은 슬림화로 요약할 수 있다.

아울러 케미칼 비즈니스 아래에 화학사업과 신규사업을 두고, 특히 신규사업 부문 밑에는 친환경 사업본부와 신소재 사업본부 등을 설치해 회사의 신규시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.

이명박 정부의 <저탄소 녹색성장> 전략에 대응해 친환경 그린케미칼 신규사업을 발굴·육성함으로써 신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.

SK케미칼 관계자는 “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과 생명과학 등 연관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1/14>